

# 2021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 1교시 국어 영역 •

1	5	2	3	3	1	4	4	5	2
6	2	7	4	8	3	9	4	10	3
11	3	12	1	13	5	14	2	15	2
16	1	17	3	18	4	19	3	20	4
21	5	22	2	23	5	24	3	25	1
26	2	27	4	28	3	29	2	30	5
31	4	32	4	33	4	34	4	35	2
36	3	37	2	38	4	39	5	40	3
41	2	42	2	43	2	44	4	45	3

### [화법]

#### 1. [출제의도] 강연의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2문단에서 강연자가 '그런데 개도 혈액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라고 청중의 대답을 이끌어 내는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후 '처음 들어 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네요.'라고 말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고, 4문단에서 강연자가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라고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한 후 '유익하셨다니 다행입니다.'라고 말하며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 [출제의도] 매체 활용 전략 이해하기

2문단에서 강연자가 도표를 제시하여 개의 혈액형에 여러 종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개의 혈액형을 사람의 혈액형과 비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강연자가 강연을 시작하면서 동영상을 활용하여 개의 수혈 장면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주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강연자가 그래프를 활용하여 '보고 계신 설문 조사 결과처럼 90%가 넘는 사람들이 개에게도 혈액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개의 혈액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정도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강연자가 개의 수혈 관계를 보여 주는 그림을 제시하여 DEA 1 혈액형의 종류에 따른 수혈 가능 여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강연자가 QR 코드를 제시하며 '지금 보여 드리는 QR 코드에 접속하시면 개의 수혈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학생들에게 주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 [출제의도] 청중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3문단에서 강연자가 '단, 첫 수혈의 경우라도 DEA 1- 혈액형을 가진 개는 ~반대로 이들로부터 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첫 수혈에서 ㉠은 ㉡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겠다는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에서 강연자가 '그런데 처음 수혈을 받는 경우라면 다른 혈액형에게서도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첫 수혈이라면 ㉡에서 ㉢으로의 수혈이 가능하겠다는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강연자가 '개는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끼리 수혈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이 이전에 수혈을 받은 적이 있었더라도 ㉢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겠다는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강연자가 '첫 수혈의 경우라도 DEA 1- 혈액형을 가진 개는 DEA 1.1이나 1.2의 혈액형을 가진 개에게 혈액을 줄 수는 있지만'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첫 수혈의 경우 ㉠에서 ㉡로나, ㉠에서 ㉢으로의 수혈이 가능하겠다는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다. ⑤ 3문단

에서 강연자가 '한편 DEA 1 혈액형을 가진 개는 모두 첫 수혈과 달리 두 번째 수혈부터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혈액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 ㉡, ㉢ 모두 두 번째 수혈을 받을 경우에는 개의 혈액형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는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다.

### [화법 · 작문]

#### 4. [출제의도] 토론의 입론 이해하기

'반대 1'이 '직관적으로 표현된 별점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은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별점 평가가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언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별점 평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찬성 1'이 '별점을 매길 때 만족도에 대한 개인의 주관에 강하게 개입되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별점 평가제에 주관에 개입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찬성 1'이 '별점 평가의 단계별 척도인 별 한 개에 부여하는 가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척도에 부여하는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찬성 1'이 '몇몇 소비자들이 악의적으로 매긴 허위 별점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판매가 급감한 사례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악의적인 별점으로 인해 판매가 급감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반대 1'이 '별점 평가제는 이미 ~자유가 침해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의 '반대 2'가 '악의적으로 매긴 허위 별점으로 인한 판매자들의 피해 사례를 흔히 들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상대 측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한 부분에서 자신의 질문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B]의 '찬성 2'가 '별점 평가제가 소비자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상대 측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한 부분에서 자신의 질문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나)의 2문단에는 토론을 들으며 별점 평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찬성 측의 발언을 듣고 별점 평가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토론하기 전에 떠올린 의문점이 해소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토론을 들으며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토론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토론이 끝나고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별점 평가제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별점 평가가 보다 객관적인 ~논의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별점 평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소비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별점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고 판매자는 별점 평가를 통한 소비자의 표현을 존중하'는 노력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7.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은 '논의하고'로 고치게 되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① '틀려졌다'는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올바르게 못하고 비뚤어지다'의 뜻으로, '비교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진 '달라졌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요즘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으로 별점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별점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 후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러나'를 '그래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유용하고'는 '쓸모가 있는'의 의미이므로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을 '유용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작문]

####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에서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1문단에서 예상 독자인 교장 선생님을 고려하여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라고 정중한 인사로 글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4문단에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건의한다는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교장 선생님께 다음 세 가지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주제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중인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결 방안을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문단에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건의한다는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학생 1인당 연간 대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예상 독자인 교장 선생님을 고려하여 도서관 개방 시간 연장에 대한 건의 사항과 함께 '방과 후 개방 시간에는 ~관리를 돕겠습니다.'라고 건의 주제인 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했으므로 적절하다.

####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기

[자료 1-㉢]에 우리 학교 도서관의 분야별 도서 보유 비율이 불균형하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자료 3]에서 북 큐레이션 서비스는 학생 개인의 필요와 흥미에 따라 책을 추천하는 것이므로 문학 도서 위주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북 큐레이션 서비스는 도서 보유 비율과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에 학교 도서관 이용 시 불편한 점이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시간이 부족하다'가 40%,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다'가 36%, '빌리고 싶은 책이 계속 대출 중이다'가 21%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원인 분석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세 가지 원인을 [자료 1-㉡]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자료 1-㉣]에 문학 분야 도서의 우리 학교 보유 비율은 47%인데, 권장 보유 비율은 25%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우리 학교 도서관의 책들이 문학이라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학교 도서관의 책들이 권장 보유 비율에 비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 1-㉣]를 활용하여 추가로 제시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자료 2]에 구독형 전자책은 도서관 권당 대출 인원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전자책 서비스 도입이라는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독형 전자책의 경우 동시에 대출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자료 2]를 활

용하여 제시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⑤ [자료 2]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대출할 수 있다는 전자책의 특징이 나타나 있고, [자료 3]에 북 큐레이션 서비스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빠르게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책과 북 큐레이션 서비스의 도입이 학생들의 시간적 제약을 줄여 주어 도서관 이용 가능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제시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표현하기**

‘지식의 세계를 여는 열쇠와 같은 책’에서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오늘 본 책으로 내일 더 자랄 수 있도록 도서관에 들러 보세요.’에서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사이시옷의 표기 이해하기**

‘콧날’은 ‘코’와 ‘날’이 결합해 [코날]로 발음되므로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④ ‘우윳빛’은 한자어 ‘우유’와 고유어 ‘빛’이 결합된 형태이고, ‘오렌지빛’은 외래어 ‘오렌지’와 고유어 ‘빛’이 결합된 형태이다. ‘오렌지빛’은 ‘우윳빛’과 달리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⑤ ‘모래땅’은 ‘모래’와 ‘땅’이 결합된 형태로 뒷말의 첫소리가 본래 된소리이다. ‘모랫길’은 ‘모래’와 ‘길’이 결합하여 [모래길/모래길]로 발음되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사이시옷의 표기 적용하기**

‘해’와 ‘살’이 결합할 때, 이때의 ‘살’은 [탐구 자료]의 ‘살’에 해당하는 명사이므로 ㉠은 합성어이다.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하는데, ‘해’와 ‘살’이 결합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므로 ㉠에 들어갈 말은 ‘햇살’이다. ‘해’와 ‘님’이 결합할 때, 이때의 ‘님’은 [탐구 자료]의 ‘-님’에 해당하는 접사이므로, ㉡은 파생어이다. 합성어와 달리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해님’의 형태가 적절하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해님’이고 ㉢에 들어갈 말은 ‘접사’이다.

**13. [출제의도] 교체 현상 분류하기**

‘중력’은 [중녁]으로 발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고, ‘칼날’은 [칼랄]로 발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고, ‘툇밥’은 [툇뻬]으로 발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므로 ‘중력’, ‘칼날’, ‘툇밥’은 ㉠에 해당한다. ‘떡물’은 [땡물]로 발음되어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고, ‘집념’은 [집뉼]으로 발음되어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므로 ‘떡물’, ‘집념’은 ㉡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높임법의 특성 적용하기**

㉠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아버지’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이므로,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는 진술을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로 동일하므로,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에서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아버지’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이므로,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생략된 서술의 주체인 ‘할머니’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이므로,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에서 주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이고, 객체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이고, 상대 높임의 대상은 대화의 청자인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대상이 모두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ㄱ의 ‘어미틀’은 ‘어미’에 ‘틀’이, ㄷ의 ‘쓰를’은 ‘쓸’에 ‘을’이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틀’과 ‘을’은 현대어 풀이에서 각각 목적격 조사 ‘를’과 ‘을’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조사의 형태가 서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의 ‘羅睺羅(라후라)’는 ‘羅睺羅(라후라)’에 ‘ㄹ’이, ㄷ의 ‘仙人(선인)’은 ‘仙人(선인)’에 ‘이’가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ㄹ’과 ‘이’는 현대어 풀이에서 각각 주격 조사 ‘가’와 ‘이’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ㄴ의 ‘瞿曇(구담)’은 ‘瞿曇(구담)’에 ‘ㅇ’이, ㄷ의 ‘南廬(남골)’은 ‘南廬(남골)’에 ‘ㅅ’이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ㅇ’과 ‘ㅅ’은 모두 현대어 풀이에서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ㄴ의 ‘深山(심산)’은 ‘深山(심산)’에 ‘애’가 ㄷ의 ‘時節(시절)’은 ‘時節(시절)’에 ‘애’가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애’와 ‘애’는 현대어 풀이에서 모두 부사격 조사 ‘에’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ㄴ의 ‘果實(과실)’은 ‘果實(과실)’에 ‘와’가, ㄷ의 ‘病(병)’은 ‘病(병)’에 ‘과’가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와’와 ‘과’는 모두 현대어 풀이에서 조사 ‘과’에 대응하고, 각각 ‘果實(과실)’과 ‘를’, ‘病(병)’과 ‘死(사)’를 이어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16 ~ 19] <출전> 이청준, 「선학동 나그네」

**16.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주인’이 회상을 통해 ‘선학동에 다시 학이 날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며 과거 선학동을 찾아온 ‘여자’와 ‘여자의 소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현재 ‘손’과 나누면서 소설이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주인에게서 소리꾼 부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인물은 손이고, 여자가 손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손이 주인에게 ‘오라비가 부녀를 버리고 떠난 것은 차마 그 원망스런 의붓아버지를 죽여 없앨 수가 없어서였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손은 여자의 오라비가 가족을 떠난 이유를 주인 사내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손이 주인에게 ‘주인장 어렸을 적에 이 마을에 찾아들었다는 그 소리꾼 부녀’라고 말하는 것에서 여자가 이전에 선학동에 온 적이 있다는 것과, 손이 안타까워 한 ‘학이 날지 못하는 선학동에 아버지의 유골을 묻고 간 여자의 일’에서 여자가 선학동에 다시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골을 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주인 사내가 ‘여자의 소리를 듣고’,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옛날의 포구로 바닷물이 차오르고 한 마리 선학이 그곳을 끝없이 노닐기 시작’한 장면을 떠올린 것에서 주인 사내가 여자의 소리를 들으며 잊고 있었던 비상학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손이 주인 사내에게 ‘그렇담 주인장은 그 오누이가 서로 아버지의 피를

나누지 않은 남남 한가지 사이란 것도 알고 있었겠구만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주인이 ‘다시 고개를 무겁게 끄덕여 보였다’는 것에서 주인 사내가 여자와 오라비가 아버지의 피를 나누지 않은 오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의 ‘그의 어조’가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낮고 차분’한 것은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들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야기 속에서 일부러 빠뜨린 것을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마음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사내가 과거에 들었던 여자의 소리가 여자가 떠나간 후에도 ㉠에서 ‘여전히’ 사내의 ‘귓전을 뻐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내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비사항이 다시 날아오른 인상적인 과거의 사건이 여자의 소리를 통해 계속해서 추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인상적이었던 과거의 사건을 잊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의 ‘주인’이 ‘가슴속에 지녀온 이야기들을 손 앞에 모두 털어놓은 것만으로’, ‘이제 자기 할 일을 다해 버린 사람 같았던 것에서 하고 싶었던 행동을 마치고 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의 ‘손’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손이 먼저 주인에게’, ‘하지만 아까 이야기 가운데서 주인공에게선 일부러 사람을 하나 빠뜨려놓고 있었지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자 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주인이 일부러 오라비의 이야기를 빼놓고 있었다는 것을 손이 알게 되었다고 추궁하듯 말하는 것을 듣고 주인이 ‘이젠 더 사실을 숨길 것이 없다는 듯’, ‘고개를 두어 번 깊이 끄덕여 보였다’는 것에서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린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여자가 ‘어느 날 밤 문득 선학동을 떠나갔’으므로, 선학동을 떠나지 않으며 ‘소리 장단을 잡아 주던 오라비’를 기다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어린 오라비가 부녀를 버리고 떠난 것은 차마 그 원망스런 의붓아버지를 죽여 없앨 수가 없어서였다’는 것을 통해 ‘손’이 어린 시절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손’이 ‘아버지의 유골을 묻고 간 여자의 일을 제 일처럼 못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손’의 아픔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여자가 마침내 소리를 시작한 후 ‘사내’가 ‘눈을 감고 가만히 여자의 소리’를 들으며 ‘비사항이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는 것에서 사내가 여자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비상학이 날아오르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여자의 소리가 예술적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사내’가 여자는 이 ‘선학동의 학’이 되어서 ‘언제까지나 이 고을 하늘을 떠돈’다고 이따금 말했다는 것에서 여자의 소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내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마을 사람들이 ‘사내가 이따금 그렇게 앞도 뒤도 없는 소리를 지껄어대’도 ‘사내의 그런 소리에 ‘그리 허물’을 하는 ‘눈치’가 없고, ‘그러는 사내를 탓하려 들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어떤 믿음을 같이하고 싶은 진중한 얼굴들이 되곤’ 했다는 것에서 ‘여자의 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사회]

[20~24] <출전> 박세민, 「보험법」

###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윗글에서 손해보험 계약이 보험 사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도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6문단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실손보상원칙은 손해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막고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금을 받을 자를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보험자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피보험이익이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하여 정신적, 도덕적 이익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혔으므로 적절하다.

### 2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피보험이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6문단에서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7문단에서 중복보험은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라고 하였고,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 사고의 대상을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5문단에서 '보험가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였고, 보험금액은 '보험 기간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보험가액이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 하였고, '보험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보험가액이 '이득금지의 원칙과 관련해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이라고 하였고, '보험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항상 보험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23.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5문단에서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이라고 하였으므로 X의 보험가액은 현재의 평가액인 800만 원이다. 6문단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엔 초과보험이 아니었으나 ~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감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㉔가 단순한 초과보험이었다면 ㉔의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㉔의 보험금액인 400만 원이 변동된 보험가액인 800만 원보다 적어서 초과보험이 아니므로, 이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 사고의 대상을

말한다'고 하였고,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에 ~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보험자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㉔와 ㉕의 보험의 목적은 X로 동일하고, ㉔의 보험자는 A, ㉕의 보험자는 B이므로 서로 다르다. 그리고 화재보험인 ㉔와 ㉕는 보험 사고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다. ② ㉔와 ㉕의 보험금액의 합계는 가입 당시에나 현재나 모두 1,000만 원인데 ㉔와 ㉕의 보험가액인 X의 평가액은 가입 당시엔 1,0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800만 원이므로 적절하다. ③ 7문단에서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㉔와 ㉕는 중복보험이고, 7문단에서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가입 당시에는 보험금액의 합계와 보험가액이 동일했으나 그 뒤 보험가액이 하락해 중복보험이 된 ㉔와 ㉕는 단순한 중복보험이어서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금을 받을 자'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2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㉔와 ㉕는 단순한 중복보험인데, 7문단에서 '단순한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지만 그 보상액은 각각의 보험금액으로 제한된다.'라고 하였으므로 A는 실제 약정한 보험금액인 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실손보상원칙이란 ~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화재로 인해 현재 평가액 800만 원인 X에 50% 손실이 일어났을 때 갹이 수령할 보험금은 400만 원이다. A와 B는 각각의 보험금액이 600만 원과 400만 원이어서 6:4의 비율로 보험금 합계 400만 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므로, 각각 240만 원과 160만 원을 갹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현대사]

[25~27] <출전> 김춘수, 「분수」

복효근, 「틈, 사이」

### 2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발돋움하는', '너', '왜' 등의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나)는 '틈, 사이'라는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의 분수가 '그리움으로 하여'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지는 것은, 자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좌절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속성을 초월한 분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발돋움하는' 것은 도약하기 위한 행위로 상승하는 분수의 속성을,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분수의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분수가 '모든 것'을 바치고도 '뿔어지는 아픔'만을 가지는 것에서 자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좌절하는 분수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라는 의문에서 현실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수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떨어져서 부서진' 분수가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는다는 것은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분수의 도전이 지속됨을 의미하고, 이는 순환성의 이미지로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 27. [출제의도]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하기

[B]의 경우, '틈, 사이'에서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힘'이 나온다고 하였으므로, '틈, 사이'는 그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C]의 경우, '그대와 나'는 '틈, 사이를 허용'하여 '슬픔의 눈물이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틈, 사이'가 '슬픔'과 '눈물'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틈 사이'는 '찰잔이 '뜨거운 불김'을 견디고 '비로소' '숨결로 살아 있'는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의 '틈, 사이'는 '차가운 눈바람과 비를 막아'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A]에서 '틈, 사이들'이 '찰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찰잔이 자신만의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처럼, [C]에서 '하나 되어 깊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실금의 틈, 사이를 허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에서 '그대와 나'의 '틈, 사이'가 관계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화자의 시선은 [A]에서 '찰잔', [B]의 '콘크리트 건물' 등 외부의 대상을 향하다가 [C]에서 '그대와 나'의 '틈, 사이'로 향하면서, '틈, 사이' 때문에 가슴 태우는 것이 아닌 '틈, 사이'까지가 하나였음'을 알게 되는 것으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과학·기술]

[28~32] <출전> 유광열, 「핵의학 기술」

### 28. [출제의도] 세부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선추적자의 ~ 몸 밖으로 나온 ~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된다고 하였다. 즉 PET 스캐너는 몸 밖으로 방출된 감마선을 검출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PET는 특정 물질과 ~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 어느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양전자 단층 촬영(PET)은 세포의 ~ 영상화하는 기술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PET 스캐너는 수많은 ~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2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2문단을 통해 방사선추적자는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되고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대사량이 높아서 ~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된다.'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세포 내에 축적'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포도당과 유사'하다고 하였고,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결합한 ~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 쓰인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하였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방사선추적자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3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그런데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므로 ㉑의 이유는 감마선 방출 지점에 따라 두 감마선이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A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동시계수시간폭인 12ns 내에 도달한 참계수의 경우이다. B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감마선 중 하나가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시간폭인 12ns 내에 도달한 산란계수의 경우이다. C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시간폭인 12ns 내에 도달한 랜덤계수의 경우이다. 만일 동시계수시간폭을 8ns로 설정하였더라도 A와 B는 모두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한 경우로 산란계수인 B는 검출될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는 참계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의 경우 한 지점에서 방출된 감마선이지만 한 감마선의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되었고 시간 차가 동시계수시간폭인 12ns 내에 도달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C의 경우 랜덤계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⑤ B의 경우는 산란계수이고 C의 경우는 랜덤계수이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실제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동시검출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㉞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유사한 점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다.'는 '유추하다'의 사전적 의미이다.

[고전소설]

[33~36] <출전> 작자 미상, 「정비전」

3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소저'와 '주소저'의 대화에서 '모친을 이별하고' '부친'마저 '전장에 가' '의지할 곳' 없는 '정소저'의 상황이, '정원수'와 '정소저'의 대화에서 '장군의 구조함을 입어' '종명을 보존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정원수'의 상황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A]에서 '정소저'가 '부친만 바라고 지'내다가 '부친'이 '전장에 가시'어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에는 '부친'과의 재회를 바라는 이유가 나타나 있고, [B]에서 '정원수'가 '장군의 구조함을 입어' '종명을 보존하여' '부모와 자식'과 '상봉'하게 되었다는 것에는 가족과의 재회가 가능해진 이유가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35.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에서 '동전의 위치'가 '황상께서 양경의 딸로 간택 하였으니, 만일 양 씨를 퇴할 수거든 금전이 스스로 밖에서 내려지게 하소서.'에 나타나는 '동전의 위치'와 일치하는 것은 '주소저'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동전의 위치'가 '분명 정낭자와 배필이 되게 하시려거든 이 금전이 방중에 내려오소서.'에 나타나는 '동전의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보고 '주소저'가 신통히 여'기는 것에서 '주소저'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동전의 위치'가 '부친께서 전장에 나가 성공하고 쉬이 돌아오시게 하거든 금전이 방중에 내려지소서.'에 나타나는 '동전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소저'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적절하다. ④ '이 몸이 비록 여자이오나 어릴 적부터 병서를 공부하였사오니 부친을 위로하려 전장에 나아가 선전하려 하시거든 금전이 방중에 내려지소서.'에서 '정소저'가 '부친'을 위해 '전장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에서 '알고 싶은 내용'은 '동전을 던지는 인물'인 '정소저'가 하고자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이후로는 다시 험한 일이 없고 심중에 먹은 마음대로 되게 하시려거든 금전이 방중에 떨어지소서'에서 '정소저'가 바라는 '동전의 위치'는 '방중'임을 확인할 수 있고, ㉣에서 '동전의 위치'도 '정소저'가 바라는 대로 '방중'으로 나타났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주소저'가 '탁월한 풍채와 늠름한 기상'을 지닌 '정소저'를 보고 놀라는 상황에서 '정소저'가 복장전환을 한 것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태자'가 '여복으로 갈아 입고' '정소저'를 따라 '관음사로 찾아가'는 것은 아내로 삼고 싶은 '정소저'와 만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태자'가 '정소저'와 '서로 슬픈 정회를 위로'하며 '옥수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여자의 모습으로 복장전환을 하여 '정소저'에게 자신을 '주소저'로 속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여자이오나' '병서를 공부'한 정소저가 '남자 되어 적진을 진정시'킨 것은 '정소저'가 남자의 모습으로 복장전환을 하여 여성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정소저'가 '부친의 위급함'을 듣고 '소년' '장수'가 된 것은 '전장'에서 위기에 처한 '부친'을 구하기 위해 남자의 모습으로 복장전환을 하여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인문]

[37~41] <출전> 토마스 아퀴나스, 「정념」, 임마누엘 칸트, 「도덕형이상학 정초」

37.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가)는 1문단에서 '선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 주는 것을 뜻한다', (나)는 2문단에서 '선의지란 선을 지향하는 ~ 선한 것이다'라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중심 개념 이해하기

(가)의 3문단에서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문단에서 '인간의 욕구는' '선을 추구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문단에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나)의 1문단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 의무로서의 사랑'이라고 했고, 3문단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갑이 이성인 을에게 첫눈에 반해 다가간 것은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려 행동한 것이지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문단에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에서 갑이 카레가 먹고 싶어진 것을 카레 냄새에 의해 촉발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라고 보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인간은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대상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갑은 카레가 먹고 싶어졌지만, 봉사활동에 늦지 않기 위해 먹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지성에 의해 카레를 먹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여러 대상에 대한 ~ 더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우선 추구'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에서 갑이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나)의 1문단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하였고, (나)의 3문단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에서 갑이 이성인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것이라고 보는 진술은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세부내용 이해하기

(가)의 1문단에서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였고, '선이란 자신에게 ~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으므로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하지만 (나)의 2문단에서 칸트는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였으므로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2문단에서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나)의 2문단에서 '인간은 도덕법칙을 ~ 조건 없이 선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다고 하였고, (나)의 3문단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3문단에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하였고, (나)의 1문단에서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3문단에서 '아퀴나스가 말하는 ~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였고, (나)의 2문단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가)의 ㉞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 (나)의 ㉟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① ㉠의 '따르다'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 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의 '따르다'는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의 '따르다'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난다.', ㉣의 '따르다'는 '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좇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 '따르다'는 '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 ㉥의 '따르다'는 '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의 '따르다'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 ㉧의 '따르다'는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움직이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

[42~45] <출전> 이방의, 「표해가」, 김기림, 「여행」

42.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조수할 길 있을쏘냐', '하지 없는 이별인가' 등에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화자가 겪은 조난의 의미를, (나)의 '얼마나 더 청신하랴', '나는 얼마나 자

랑스리우라' 등에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글쓴이가 생각하는 여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가)에서 화자는 ㉠의 '큰 섬'이 보임에도 '인력'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을 드러내며 바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고, (나)에서 글쓴이는 자신에게 '정해지는 길'이 짧아 '제일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의 '차표'를 부러워하고 이후 '차표가 끝나는 데까지 갈 것'이라고 하며 멀리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글쓴이는 모든 '의무'와 '미정고들'을 '먼지긴 방안에 묶어서 두고' 여행지로 떠나고 싶어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글쓴이는 '산'에 대해 '산의 기틀을 감추고 있'다고, '바다'에 대해 '바다대로 호탕'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바다'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글쓴이는 '만약에' '이국의 소녀를 만날지라도'라고 하며 여행지에서의 낯선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서투른 외국말로 대답하게 대화를 하리라'라고 하며 자신이 취할 행동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글쓴이는 '「보스톤·백」과 '단장'을 사겠다고 했으며, 이러한 물건을 들고 '차표가 끝나는 데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글쓴이는 여행에 대해 '그것 밖에 남은 것은 없다'고 하며 '행복의 최후의 준비'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삼대도'가 보이자 '선구를 보집'하는 것에는 바다에서 벗어나고자 배의 기구를 수리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나)에서 글쓴이는 '사치한 어족들'의 여행을 상상하고 있지만 그들이 '해저에 국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들은 일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화자는 '선판 치며 즐기'다가 '태산 같은 높은 물결'을 만나 손쓸 길 없이 예상치 못한 조난을 겪게 되고, 이러한 조난의 상황이 '일엽선이 끝없이 떠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오늘은 진주의 촌락'을, '내일은 해초의 삼림'을 다니는 '어족들'에는 바다를 자유로운 공간으로 여기는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어복 속에 영장'할 수 있음에 '원통'함을 느끼는 것에는 바다를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선창'에 기대서 '청초'와 '활발'을 지닌 '어린 고기들'을 바라보는 것에는 바다를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선판을 치는 소리'를 듣고 '검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 고기 아니었으면 우리 어찌 살았으리'라고 하는 모습에는 생존을 위한 화자의 체험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눈을 감고' 바다를 '머리 속에 그려'보는 모습에서 바다에 대해 상상하고 있는 글쓴이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